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2월 1일 정각원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는 동국건학 ·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생 113명이 동참했다. 사진은 연비를 받고 있는 장학생들의 모습.

동국대 건학위 장학생들 불제자로 거듭나다

건학위원회 12월 1일 정각원서 첫 수계법회 봉행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전계사로
건학 · 지역미래불자육성 장학생
113명 한자리서 수계받고 불자돼
"계, 범부 벗어나 성인 되는 씨앗"
수계 학생들 "불교 널리 알릴 것"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계를 받는 저희들은 지금 대덕 큰스님을 청해 계사 스님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덕 큰스님에게 의지해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고 올바른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사오니 원하옵건대, 대덕 큰스님께서는 청정한 계를 주옵소서."

인례사 스님들의 선창에 따라 수계자들이 수계법사를 모시는 청을 우렁차고 간절하게 올렸다. 간절한 수계의 청을 올린 사람들은 동국대 건학위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이들은 이날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불제자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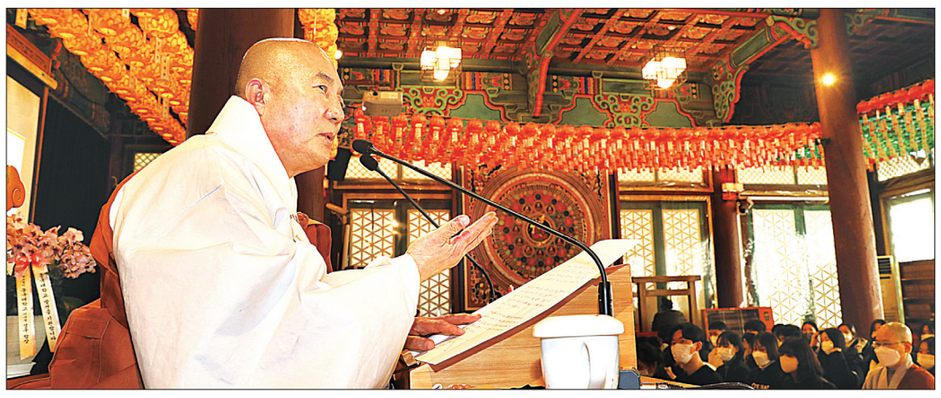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2월 1일 교내 정각원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를 받은 학생들은 동국건학장학생과 지역 미래불자 장학생들로 총 113명이 동참했다.

신행 · 인재육성 두 토끼를 다 잡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다양한 장학제도를 신설해 운영해 왔다. 이는 고문 자승 스님이 "동국대를 등록금과 취업 걱정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원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승 스님은 건학위원회 장학기금으로 10억 원을 기탁했다. 이는 '동국건학장학'의 기틀이 됐다. '동국건학장학'은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서울캠퍼스 30명, 경주캠퍼스 3명, 의료원 2명 등 35명이 1기 장학생으로 선정됐다. 동국대는 장학생 선발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해외탐방 프로그램 △진로지원 △장학생 모임 △졸업 커뮤니티 구성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건학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은 지역 사찰이 동국대에 진학한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수여하는 장학금이다. 사찰은 1000만 원의 장학기금으로 10명의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사찰 · 스님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찰 스스로 '우리가 선발한 특별한 장학생'이라는 애정을 갖게 하고, 학생들 역시 '출신 지역 사찰에서 선발된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긍정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25개 사찰이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에 동참했으며, 전국에서 상경해 동국대에서 수학 중인 학생 300여 명이 장학혜택을 받았다. 이 같은 건학위원회의 장학제도는 신행과 인재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계사로 나선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오계의 의미에 대해 설하고 있다.

이날 수계법회도 '신행+장학생'이라는 건학위원회의 장학시스템이 있어 이뤄질 수 있었다.

"수계,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

수계 학생들의 청에 법상에 오른 전계사 돈관 스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과 덕을 지어라 △그릇된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맑은 지혜를 기르라는 부처님 오계의 의미를 설명했다.

돈관 스님은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이라며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의 계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고 설했다.

이어 "부처님의 계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니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신조이며 행동강령"이라며 "이제 계를 받는 것은 천년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축원했다.

전계사 스님에게 오계의 의미를 들은 수계 학생들은 참회진언을 외웠고, 인례사 스님들은 학생들의 왼팔에 연비를 내렸다.

수계를 마친 학생들은 청정한 계율을 지키는 청년불자로 거듭날 것을 발원했다. 학생들은 발원문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부처님의 성품이므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불자가 되겠다"면서 "늘 청정한 생활 속에 기쁨을 나누는 불자가 되겠다. 올바른 말과 밝은 슬기로 빛나는 생활을 열어 갈 것을 서원한다"고 밝혔다.

"불자가 돼 행복합니다"

불제자가 된 동국대 건학장학생들 건실한 청년불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내보였다. '보련'이라는 법명을 받은 왕정은(교육학과, 동국건학장학) 학생은 "정각원 수목법회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신행 생활을 했지만, 수계를 처음 받았다"면서 "마음 깊이 불법 새기고, 실천하며 또래 청년들에게 불교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인(건설환경공학과,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학생은 '아란'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는 "템플스테이나 걷기순례를 해본 적은 있었지만, 수계를 받고 불자가 되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종립학교 정광고를 다니며 수계를 받았던 김윤미(경영학과, 동국건학장학) 학생은 "대학생이 돼 수계를 받으니 고등학교와는 성취감이 다르다"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계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담'이라는 법명을 받은 장대한(경찰행정,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학생은 "무종교인이었는데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통해 쌍계사와 인연을 맺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수계법회는 처음인데 정각원 스님들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즐겁게 수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준 쌍계사와 건학위원회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돈관 스님이 학생 대표로 김영인 학생에게 계첩을 수여하고 있다.



수계 학생들이 장궤합장을 하며 참회진언을 외우고 있다.



수계법회에 동참한 학생들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수계법회 전경 모습.